

# 중년기 주부들의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의 내면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Middle Adulthood Housewives'  
Appearance Changing with Age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교 수 오 현 정\*\*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 전공 교수

교 수 김 선 미

Dep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Hyun Jeong Oh*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Seon Mi Kim*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 V. 나이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         |
| II. 관련 연구 경향         | VI. 나이 인식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의 내면 |
| III. 연구방법과 절차        | VII. 결론                   |
| IV. 중년기 주부들의 나이인식 경험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qualitative case study examines how mid-life housewives perceive age, react to aging, and experience the changing of their appearance that comes with ag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eight housewives - four full-time housewives and four working housewives in middle adulthood.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at were based on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January 2010 to October 2010. Findings are as follows: during mid-life, housewives continue to exert efforts toward self-development, and toward self-actualization that can unleash the potential of their "multi-self". The housewives of the Entering Middle

\* 이 연구는 2010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주저자: 오현정 (ohhj@gwangju.ac.kr)

Adulthood self-actualization period believe that the material self as manifested in appearance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the multi-self. Indeed, both groups of housewives thought a great deal about the criterion of appearance for their age and were concerned about others' viewpoints, social stereotypes, the appearance "norm,"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ated to appearance. The full-time housewives made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elves, and the working housewives tried to enhance their spiritual selves. The viewpoints of husbands are often internalized into housewives' internal points of view; therefore the relationships of housewives with their husbands were crucial both to the confidence the women felt in their appearance, and to their satisfaction in life.

**Key Words :** 중년기 주부(middle adulthood housewife), 나이인식(age perception), 외모변화(changing appearance),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 I. 문제제기

어느 시기 여성들은 오랫동안 선호하던 의복 스타일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음을 느끼고, 즐겨 입던 브랜드의 옷을 입어도 얻어 입은 듯 어설피고 초라해 보이고 뭔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 취향의 변화인가? 사회적인 취향, 즉 유행이 바뀐 것인가? 또한 어느 시기인가부터 자주 등장하는 대화주제가 건강, 머리 염색, 피부 관리, 다이어트 등이다. 개인적인 변화인가? 물질주의적 사회 때문일까? 그것은 나이 살이 저서 나이가 옷을 입으므로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중년기의 변화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년이라는 나이가 주는 변화는 어떤 것일까? 중년기 여성이 이 시기에 경험하는 미모 변화 인식과 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힐 수 있다면 길어진 노년기 인생구조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년기 여성들의 패션제품 구매 사용 소비를 포함하는 의생활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밝히는 것은 의류학자로서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중년기는 사십에서 육십까지의 나이로서 성년기에 수립했던 인생구조의 목표달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인생구조를 수립하는 시기라고 한다(Levinson, 1978). 그래서 중년기는 그 동

안 익숙했고 충실했던 문제해결 방식도 되돌아보게 한다. 양적 연구는 연구자가 선택한 변수 이외의 변수는 연구에서 가능한 한 배제 하지만 질적 연구는 변수를 미리 한정하지 않고 눈에 띄는 모든 변수를 최대한 포착하려고 한다는 점(조용환, 2002, 21)에서 새로운 방식이다. 또한 질문지에 자기의 내면 일부를 빼놓고 퇴장당하는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얻은 결과가 과연 그들의 내면을 제대로 공감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연구자의 의도보다 제보자의 언어로 표현된 고유한 통찰을 볼 수 있고, 일상적인 맥락 속에서 살아가는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는 중년기 주부들의 내면세계를 파악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었다. 창의적, 상대적, 개방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수용해서 활용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아직도 부족하고 지식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낯선 연구자에게 기꺼이 자기들 속내를 보여줬고, 지금은 친구가 된 제보자들이 연구결과를 재촉한다. 또한 첫 면담을 시작한 이후 꼬박 1년 간 막막하기만 하던 분석이 연구 시작 전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나 연구자의 관심 주제로 조금씩 풀려 가는 기쁨에 이끌렸다. 이렇게 중년기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이 일치하

도록 변화를 시도하게 했다.

본 연구는 주부들의 의생활을 통해 중년이라는 나이가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지 알고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중년기 주부의 나이인식과 외모변화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개별 사례를 통해 나이인식이 주도하는 변화경험 속 기준과 내면이 무엇인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경험하는 외모변화 경험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중년기 주부들이 나이 들어가며 경험하는 외모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 II. 관련 연구 경향

### 1. 중년기의 구분과 특징

일반적으로 성인기는 크게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특히 중년기는 40세에서 60세에 이르는 성인중기로서, 중년 전환기(40-45세), 중년 입문기(45-50세)와 50대 전환기(50-55세), 중년 절정기(55-60세)로 구분되고 있다. 중년 전환기는 성년기를 마무리하고 중년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젊은 세대보다 늙었다고 느끼더라고 아직 자신을 중년이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중년 입문기는 중년 전환기의 모색들로 하나의 새로운 인생구조를 수립하는 시기이고, 50대 전환기는 인생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시기라고 한다(김애순, 2004; 62). 이렇게 중년 전기는 상실보다 성장과 자원 축적을 더 포함하고 중년 후기는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함으로써 여러 가지 길에서 균형을 발견하려고 시도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중년 입문기의 주부들은 가사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활동이 증가하며,

취업 주부라면 역할 갈등감소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50대 전환기의 주부들은 빈 둥지 분리감이나 공허감 그리고 흥가분함의 양면감정을 경험하며, 취업 주부라면 일을 통해 자신감, 자율성, 성취감을 맛보는 시기이기도 하다(김애순, 1996, 109). 김명자(1998, 61-62)에 따르면 중년기 주부들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역할변화, 젊음의 상실과 신체적 노화, 사회활동을 하는 또래주부들로 인한 사회적 위축감으로 위기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변외진, 김춘경(2006)은 중년기 주부들이 자아정체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정서적 측면에서 벗어나 지적 체계를 강화하고, 의존적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중년기가 외부에 쏟았던 심리적 에너지를 내면세계로 돌리는 시기이고, 새로운 가치와 신선한 동기를 찾아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발달시키는 시기임을 알 수 있게 한다.

### 2. 중년기 주부의 나이인식과 외모변화

중년 전환기는 주부들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노화의 단서를 최초로 자각하는 시기였으며(한경혜, 노영주, 2000), 중년 후기는 젊음의 시대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상실과 함께 나이가 들어 얻게 되는 마음의 여유, 성숙이 공존하는 시기였다(강유진, 2004). 젊음이 끝나간다는 상실의 시기에 중년기 주부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외모변화는 체형변화와 체중증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 주부들은 젊은 취향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체형이 드러나지 않도록 클래식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고(심정희, 2006), 평상시 대담하고 특이한 의복보다 평범하고 수수한 이미지의 의복과 점잖고 품위 있는 의복을 즐겨 입는 편이다(류숙희, 신수래, 2008).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름다움과 치장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최고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름다움의 두 가지 주된 척도는 ‘날씬한 몸매’와 ‘젊어 보이는 것’으로 다이어트, 화장품, 미용성형수술 등의 산업을 동반하였다(Gilles, 2007).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력은 대부분의 주부들에게 내면화되어, 화장, 피부 관리,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의 외모관리행동(김선희, 2003; 김윤, 황선진, 2008)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피부노화, 체형변화를 경험하는 중년기 주부들은 아직은 아름다운 나이로 부각시키는 대중매체의 기여와 함께 외모관련 산업 성장의 주된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년기 주부들이 평가한 최고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품위였는데(이선옥, 1999, 171), 김유덕, 김미영(2004), 노영, 박재옥(2008) 등도 중, 노년기 주부들이 가장 높게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는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옷차림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중년의 아름다운 외모를 간직하기위해서 타고난 미모보다 사회적 지위나 부가 보완 요소임을 확인하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이처럼 중년기의 외모변화 즉 생물학적 노화과정은 신체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이 사회의 주부에게 보다 중요하고 복잡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년기의 나이 들어감은 생물학적인 손실이 분명하지만 사회적 문화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유지되는 시기로 획득과 상실의 비율이 바뀌는 시기 혹은 자원의 할당이 바뀌는 시기(Staudinger & Bluck, 2001)로 봐야한다는 것이 중년기 주부 연구의 공통된 제언이라 하겠다.

### 3. 중년기 주부의 자기발달

중년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던 옴은 40세경에 가장 두드러지는 개별화는 외적 자

기를 내적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생 전체가 균형과 통합을 이뤄서 자기실현이라는 최종목표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김명자, 1998: 34-35). 중년기의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는 인간이 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에 근거하는 것이다(강혜원, 1996: 239). 중년기 이전에는 자기실현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이는 성년기 동안 직업, 성, 결혼, 자녀양육, 경제적 안정 등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가 분산되고 소모되지만 이런 욕구가 대부분 충족된 중년기는 자기 성숙을 향한 노력에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옥분, 2000).

모든 주부들의 내면에 공존하고 있는 전통적 가정주부 형상과 반 전통적 가정주부 형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며(Levinson, 1998, 10), 인생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진화함으로써 중년기에 이르러 균형과 통합을 이루게 된 것이라 하겠다. 즉 전통적 가정주부 형상이란 부드럽고 비 이기적, 희생적이고 내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과 남편의 욕구를 우선하며, 남편에게 의존하라는 전통적 주부상이라 하겠다. 반 전통적 가정주부 형상이란 보다 독립적이고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며 책임 있는 유능한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능력을 갖추려는 성취적 주부상인 것이다.

자기실현, 자기발달, 자기형성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상징적 상호주의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개인은 사회에서 공유된 의미와 상징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킴으로써 자기개념을 발전시킨다. 자기개념(self-concept)은 다면적인 속성을 가지며, 물질적 자기(the material self), 사회적 자기(the social self), 정신적 자기(the spiritual self) 등으로 구성된다(임숙자의 4인, 2009: 27-28). 특히 사회적 자

기의 형성과 발달에 집중했던 쿨리는 ‘면경자기(looking glass self)’ 이론을 통해 개인은 타인이 갖는 자기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자기의 외모, 태도,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게 된다고 했다. 고프만은 자기발달을 연극학적 입장에서 설명했으며, 인간은 자신의 인상을 타인에게 표현되는 무대 위의 공적인 자기(public self)와 무대 뒤 사적인 자기(private self)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했다(강혜원, 1996: 282-285). Whitebourn (1986)은 성인기의 자기발달은 사적-주관적인 자기(I)와 공적-객관적인 자기(me)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뤄지며, 주체적인 자기(I)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기이고, 객체적 자기(me)란 외모, 행동,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타인들이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자기라고 제시한 바 있다(김애순, 2004: 217).

### III.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중년기 주부들이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며, 그에 따라 어떤 외모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로서 이런 연구목적을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선택했다. 첫째 중년기 주부가 경험한 나이인식의 대응방식과 극복방안은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주부가 나이에 따라 경험한 외모변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중년기 주부의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의 내면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가운데 심층면접을 사용한 문화 기술적 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Spradley (1979), 조용환(1999), 김영천(2010) 등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한 후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치고, 이들의 순환 속에서 중년기 주부들의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에서 일정한 유형과 주제를 찾고자 노력했으

며, 사례경험 속에 녹아있는 내면의 의미와 역동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심층 면접 자료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여덟 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2010년 1월에서 4월까지 1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0년 9월에서 10월까지 2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번 면담하는 평균 시간은 1시간 40분이었다.

제보자의 응답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제보자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비구조적인 질문을 주로 활용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용, 방법 등의 연구절차는 김선미(2008), 노영주(2000), 박미란(2009)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요새 언제 나이변화를 느끼시나요?’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외모변화를 경험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처럼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와 관련된 개략적인 질문을 주고, 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질문들을 충실히 이어나갔으며,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조질문이나 반대질문을 활용하였다. 면담 중 제보자가 중요하게 반복하거나 차별되는 특징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자료를 전사하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연구노트에 메모하였으며, 녹음한 심층면접 자료는 전사하였다. 2차 면접은 1차 면접 시 빠진 내용을 보충했으며, 기본적인 가계 환경 파악을 위해 나이, 학력, 직업, 월평균 가계 총수입, 월평균 자신의 외모관리비, 결혼연령 등을 묻는 질문지를 추가하였다.

연구대상은 중년기 주부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와 양육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와 갱년기라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중년기 주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와 그렇지 않은 주부의 나이인식과 외모변화 경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 구분하였다. 나이와 취업여부에 따라 구

분된 4집단별 각각 2명의 제보자들을 편의표집 하였다. 제보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이, 직업, 수입 등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시했으며,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했고, 상세 직업 대신 직업분류군만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제보자들의 평균결혼연령은 24.4년이었고, 결혼 기간은 20년-30년이었으며, 자녀수는 모두 2-3명으로 평균 자녀수는 2.25명이었다.

전사된 자료는 우선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제보자의 말들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사 자료 순으로 제보자 이름과 전사 자료 면수를 표기하며 엑셀파일로 편집하였다. 다음으로 제보자의 말을 그대로 편집한 파일에 연구자의 관심 주제와 제보자 말의 중심 주제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코딩함으로써 전체 자료의 형식을 통일하였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주제별로 정렬함으로써 제보자들 간의 특성 변별이 쉬워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제보자들이 제공한 풍부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나이인식 경험과 외모변화경험으로 나누어 기술, 분석, 해석되었다. 기술의 단계에서 우선 나이인식 경험에 관한 제보내용을 중년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두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다음은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에서 외모규범을 관찰함으로써 외모변화의 기준과 내면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연구변인에 대한 분석단계에서 먼저 제보자들의 경험 진술에서 관찰되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유형화하였고, 다음으로 집단내 공통점과 집단 간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유형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마지막 해석단계에서는 기술과 분석 단계에서 제시된 유형들을 통해 제보자들의 성격특성을 해석하고, 나이인식 극복방안을 통해 자기발달이라는 내면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외모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신체적 외모로서 의복과 장신구, 미용, 체형, 성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표 1〉 제보자의 특성

(단위: 만원)

이름	나이	직업	남편의 직업	월평균 가계총수입
황은영	47	서비스직	사무직	400
정선주	49	자영업	전문직	1,300
윤수현	50	관리직	관리직	900
최인선	53	전문직	전문직	800
김정화	45	주부	전문직	1,000
이지민	46	주부	전문직	1,000
박미숙	53	주부	전문직	550
이경희	54	주부	전문직	1,500

#### IV. 중년기 주부들의 나이인식 경험

중년기는 나이변화가 예전과는 다르게 인식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중년기 주부들은 젊음의 상실과 나이 듦의 혜택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고, 그 변화경험 속에서 이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보기 위한 변화의 필요를 말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변화의 내용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 방법도 제시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나이인식에 따른 대응반응이 유사한 정도에 따라 제보자를 유형화 해보았고, 나이변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외적, 내적방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 1) 나이인식 대응반응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임을 인식하는 사건과 시기는 각기 달랐지만 그 대응방식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이변화 인식에 대한 초기 경험은 자기상실감에서 오는 슬픔, 우울, 허무 등 부정적인 감정이었지만

자기발달을 추구하는 건강한 중년기 주부들은 자기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이를 인식하면서 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 반응 행동 면에서 유사함과 차이를 보인 제보자들이 관찰되었고,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먼저 정선주, 이지민 씨는 나이인식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인 변화를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게 감지하는 편이었지만 대응 반응에서는 자신의 욕구와 요구가 뚜렷하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길 자신감도 없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엄마, 남편, 주변사람 등 타인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했으며, 타인 혹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입고 싶은 옷이나 구매행동에 망설이고 갈등하다 시기를 놓쳐 결국 후회와 불만을 표현했던 다소 소심하고 의존적인 유형이라 하겠다.

정선주 씨는 어린 시절, 교사였던 엄마의 검소한 생활습관이 지금도 구매 자신감, 의복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지민 씨는 지금도 친정엄마와 밀착관계였으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알아볼 만한 집안의 자녀로서 받은 가정교육은 지금도 자신의 의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가끔씩 자기가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옷차림을 시도하려고 하지만 주변의 반응 때문에 유보와 좌절을 경험하며 불만족스러워했다.

(남편에게) 어떤 누가 되지 않는 정숙한 이미지를 쥐야한다는 것, 왠지 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제하는... 그게 베인 거 같아요. 너무너무. 항상 남편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거 너무 많아서. ... 어딘가 탈출해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은데 제일 걸리는 게 나이에요. 이 나이에 이 걸 입으면 남 시선이 어떨까 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나이를 생각하게 되요... 이제부터라도 좀 잘 차려입

고 다니고 싶은데, 괜찮게 하고 싶은 욕구 아직도 있어요. 마음은 아직 이삼십 대예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입는 게 잘 입는 건지 아닌지.

다음으로 김정화, 황은영 씨는 제보자 중 가장 젊고, 가장 화려했으며, 가장 옷을 좋아하는 집단이었다. 현재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와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의 충족에 충실하였다. 능동적, 적극적인 젊은 에너지로 자기가 원하는 감각적 욕구를 실현하도록 변화 방향을 적극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화 씨의 열정적, 감각적인 자기성향은 결혼 후 가정에서 자녀교육 전담역할과 충돌하게 되었다.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활동에 빠지면서 자녀교육이 일부 실패했지만 자기로서는 오히려 즐거웠으며 후회하지 않았고,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댄스교실을 다니면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황은영 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기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지만 시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사십대에 자기 일을 시작했으며, 활동적인 직업이 너무 만족스러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최근에 나이를 실감하게 하던 눈가 주름을 성형했고 그 결과에 만족했으며, 오십대 이후에도 성형으로 보완할 거라고 했다.

(댄스 발표회는) 화려한 옷 입고 높은 구두 신고 조명 막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어. 하고 나면, 내 자신이 뭔가 해낸 거 같아.

(시부모님과 살면서는) 자기 생활이 없더니깐요. 외출도 별로 안했고, 그 때는 얼마 화장도 안하고, 뭐 머리도 안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발톱에 메뉴큐어라고... 옛날에는 전혀 그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색다르게 하고 싶어. 내 몸 일부러.

이경희, 최인선 씨는 제보자 중 가장 나이든 50대 전환기에 속한 이들은 현재 자신의 변화된 욕구와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젊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욕구에 충실하였다. 지적인 욕구와 독립적인 자기 일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이들은 공부와 재취업이라는 방향으로 변화가 실현되도록 적극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경희 씨는 부모님의 강요로 교육대학을 진학했고, 결혼과 함께 교직을 접고 아이 셋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와 살림으로 정신없이 살던 사십대 초반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영문학과로 편입을 하고 지금은 석사학위과정 중이다. 최인선 씨는 맞벌이 교사생활 20여년만인 사십대 중반에 암수술과 치료를 위해 퇴직하였다. 퇴직 후 극명해진 자기존재감 확인과 자기존중감 유지를 위해 질병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교사생활을 시작했으나 건강 때문에 결국 그만 두고, 지금은 교육 봉사로서 자기실현의 한 가닥을 잡고 있었다. “내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봉사)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봉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주부로서 15년간 애기 아빠의 밥을 날랐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주부로서 아름답고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완벽한 주부의 삶이라고 생각했 다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렇게 중속된 건 지 몰랐어요... 어머, 이게 아닌데, 왜 사십이 란 나이가 엄청 많이 살아 왔지만, 아직 뭔가 시도해도 될 만한 시기인가야.

(퇴직하고) 한 1년 지나면서부터 후회했던 거 같아 바로 후회했어. 그러니까 내가 오십이 넘어서도 다시 시도했겠지... 난 역시 좀 일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야. 일을 할 때 딱 에너지가 솟아요. 말소리부터가 이렇게 달라져. 목소리에 힘이 있고.

윤수현, 박미숙 씨는 나이인식에 따른 변화 욕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 나이의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징후로 수용하는 집단이다. 조용하고 차분한 내향적 성향을 보였고, 종교적 언급이 많았으며,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특성을 보였다.

윤수현 씨는 나이 들에서 오는 변화를 강하게 경험하지만 개인적인 보상을 위한 욕구 충족보다

“내 잔만 채우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신 능력 조금 더 발휘해서 넘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느라고 최선을 다 해서” 살아냄으로써 종교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박미숙 씨는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무렵부터는 나도 좀 가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40대 중반부터 피부나 외모나 그런 거에 관심가지는 거 같아요.”라고 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했으며, 현재에 충실했던 태도로 지나간 세월에 미련도 후회도 없기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조용히 봉사하며 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어느 때인가 이게 갱년기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면서 차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웬지 요즘은 실수도 잘 하게 되고 뭘 잘 잊어먹기도 하고, 뭘 흘리기도 하고... 되게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내 맘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그게 슬픈 거잖아요. 저는 종교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항상 교회에 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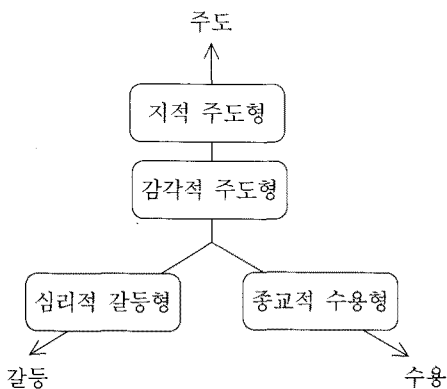
특별히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지금이 제일 마음이나 뭐든 것들이 편안하다고 봐야겠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죠. 감사합니다. 감사.

이렇게 제보자마다 나이인식에 대응하는 특성이 서로 달랐지만 정선주, 이지민 씨는 심리적 의존성으로 인한 후회와 불만족함을 표현했



으며, 김정화, 황은영 씨는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경희, 최인선 씨는 학생과 재취업 교사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지적인 추구라는 유사성이 있었고, 윤수현, 박미숙 씨는 종교적 언급과 종교 생활을 중시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였다. 또한 나이인식에 반응하는 방식도 차이를 보였는데, 김정화, 황은영, 이경희, 최인선 씨는 젊은 에너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유사함이 있었다. 정선주, 이지민 씨는 변화 욕구에 갈등하는 유사함이 있었고, 윤수현, 박미숙 씨는 나이변화를 조용히 수용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듯 제보자들이 나이인식에 대응하는 내용에 따라 심리적, 감각적, 지적, 종교적 특성이 차이 났으며, 나이인식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갈등적, 주도적, 수용적인 특성으로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다. 따라서 나이인식 반응유형은 ‘심리적 갈등형’, ‘지적 주도형’, ‘감각적 주도형’, ‘종교적 수용형’ 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나이인식 반응유형

## 2) 나이인식 극복방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젊음과 사회적 기회 의 손실만은 아니었다. 제보자들은 젊음 앞에

서 초라해지는 나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즉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신체적인 변화를 직접 보상하는 외적인 극복방안과 정신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젊어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내적인 극복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외적인 극복방안

나이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전 생애 동안 중요했던 경제력과 외모관리를 통한 젊은 외모 유지 혹은 변화 지연으로 정리해 보았다. 특히 경제활동 능력이 줄어든 중년 이후 경제력은 길어진 노후 뿐 아니라 나이인식 극복을 위한 물질적 보상의 원천이며, 나이 들의 최고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완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① 경제적 여유와 물질적 보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강조되는 외모이미지는 고급스러움, 품위, 귀한 티, 우아함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날 추구해 오던 외모 이미지가 더 이상 표현되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 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비싼 옷, 메이커, 백화점, 명품, 명크 등의 제품을 입어 주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하였다. 거꾸로 나이 들어서의 품위는 고급스런 제품인지 아닌지로 차이난다고 했으며,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상상을 못했죠. 사십대 중반? 오십대 되니까 나도 한두 가지 명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바뀌더라고요. 오십대 되니 갑자기 명크가 눈에 들어오고 백도 명품백이 들어오고 지금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5-6 만원짜리 입고 그래도 부담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오십대가 넘어가면 정

말 메이커라도 백화점에 가서 ... 그것도 경제적인 여유하고 따라줘야지.

## ② 외모관리 관심증가

빛이 사라지면서 무너지는 외모를 보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다이어트, 운동, 체형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몸매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맵시 나는 옷차림을 포기해야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피부탄력이 떨어져서 처지거나 부은 듯이 보이는 것과 함께 실제로 체중과 의복사이즈가 증가하는 신체적 변화이었다. 모든 제보자들은 각자가 기대하는 피부탄력과 몸매 유지를 위해 산책, 조깅, 등산, 골프, 댄스, 에어로빅 등의 다양한 운동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피부 관리 역시 모든 제보자들에게 관심거리였다. 미리 관리를 시작한 또래들의 탱탱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보면서 처음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거나 미백, 리프팅, 주름 완화 등의 기능적 효과가 있는 비싼 화장품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화장의 연장선에서 눈썹 문신으로 처지거나 희미해진 눈썹을 보완했으며,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성향의 제보자는 비싼 아이크림 대신 눈가 주름제거시술을 받고 만족스러워 하였다. 성형관리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큰 거부감이 없이 수용되었고, 신기술과 의학의 힘을 빌린 다양한 외모관리 기회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은 살 빼는 것도 옷 때문에 빼요. 옷 예쁘게 입으려고. 살이 조금만 쪼도 이런(배와 옆구리) 데가 볼록거리니까.

성형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주름살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씩은 ... 보완 차원에서.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 (2) 내적인 극복방안

젊음이란 옷차림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것보다 변화 앞에 나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주도하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발전과 성장주체로서의 자신감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나이 든다는 것은 이런 젊음과 사회의 주체라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지만 아울러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로써 미뤄두었던 자신의 욕구와 직면하는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인 것이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삼십대는 완전히 가족들에게 자신을 희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온전히. 사십대에 와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중년기 주부들은 드디어 가족을 위해 돌보지 못했던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을 얻었고, 젊음의 화려함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대안을 갖게 되었다.

### ① 자기개발 추구

가사와 육아 책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전업 주부들은 존재의 공허함, 허무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저물어가는 나이 탓으로 생각했지만 이는 자기발전이나 자기실현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독립된 한 개체의 무의식적 자기호소라 해도 무방한 감정일 것이다. 박미숙 씨는 자기를 돌아보게 된 사십대 중반부터 대학진학이 여의치 못해 포기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동양화 클럽활동을 하면서 내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 이지민 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편에게 자기도 뭔가 해낼 수 있는 독립된 개체임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경희 씨는 뒤늦은 공부 가 남편에게서 독립하고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당당히 표현하였다. 중년기에 찾아온 자기개발은 독립된 개체로서 자존감 유지, 자기실현 욕구의 발현이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는 결혼할 때 오증자가 쓴 불어 참고서를 싸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내 자신은 날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있었죠. 그게 향시 있었지만 우선 내 현안에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해주는 거니까 15년간을 아무소리 안하고 그렇게 살았죠.

## ② 내면가치 발견

제보자들이 그려 본 나이 든 모습은 세련보다는 편하고 우아하고 인자한 모습이었으며, 나이 들어서 품위란 잘 차려입은 외모보다는 내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중년기는 확실히 새롭고 다양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기였다. 중년 입문기의 가장 젊은 제보자 김정화, 황은영 씨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엔 아직 이른 시기로 보였다. 나이에 따른 외모변화를 막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 구체적으로 자신의 나이 든 모습을 그려내지 못 했으며, 지금 외모스타일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에 더 관심이 많았다.

중년기의 나이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됨으로써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도 부정적인 얘기나 험담은 피하게 된다고 했다. 젊었을 때는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지만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외모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나이 든 사람의 품위, 기품이 드러나도록 내면을 채울 방법을 고민했다. 그 내면의 정체는 마음의 여유, 포용력, 관대함, 이해의 폭, 너그러운, 배려가 커지는 것과 함께 마음을 숙이고, 적당한 포기, 남을 위해 살고, 욕심을 접는 등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이타적 여유로움을 꼽았다.

나이 들면 아무래도 편하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숙이게 되고 포기할거 포기하게 되고... 신념이라고 하면 글썩요, 남을 위해서 좀 더 살고 자기보다는. 자식이라든지 주변을 배려하면서 살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50대 전환기의 제보자들은 인간적인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신체적인 변화 앞에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체험을 이야기했다. 자연의 순리에 항복하고 순응해야함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적 성숙을 얻게 되고,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부하는 구체적 실행을 동반한 종교적인 성숙은 연륜에서 탄생되는 아름다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모든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기를 치장하거나 과장했던 군더더기를 치움으로써 부족한 자기가 드러나더라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변한다고 하였다. 결국 다른 존재의 고유성, 독립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모든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넓은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젊어서는 나를 드러나는 것도 잘 안 하잖아. 내가 부족한 부분은 더욱 안 드러내잖아. 지금은 드러내잖아. 지금은 안 부끄러워. 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나이인식에 대응하는 내용과 반응정도에 따라 심리적 갈등형, 감각적 주도형, 지적 주도형, 종교적 수용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나이변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외적방안은 경제적 여유와 물질적으로 보상하기와 외모관리에 관심 증가로 정리되었으며, 내적방안은 자기개발 추구하고 내면가치 발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아래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나이인식 반응유형과 극복방안

연구문제		분석결과
나이인식 반응유형		심리적 갈등형, 감각적 주도형, 지적 주도형, 종교적 수용형
극복방안	외적방안	경제적 여유와 물질적 보상, 외모관리 관심 증가
	내적방안	자기개발 추구, 내면가치 발견

### V. 나이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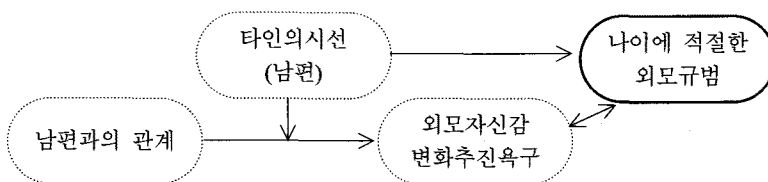
중년기 체보자들은 나이에 적절한 옷차림 혹은 외모로 변해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나이에 맞는 사회적 고정관념 혹은 외모규범을 경험한 것이다. 이러한 외모규범에 대응하는 방식이 자신의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복 자신감이라 할 수 있었고, 그 자신감의 내면에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태도와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내면화된 자기의 반영으로 구성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외모변화 경험의 깊숙한 내면에서 나이에 적절한 외모로 경험하는 사회적 시선, 사회적 시선으로 내면화된 남편의 영향력 간의 상관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이에 적절한 외모규범 속에 내재하는 요인들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해 보았다.

#### 1) 나이에 적절한 외모로 경험하는 외모규범

나이든 옷차림의 표징은 치마와 높은 구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마 입는 횟수가 줄었고, 비록 높은 구두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편한 바지가

좋아지고, 에이라인이나 넉넉한 상의로 허리선을 드러내지 않는 옷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는 옷차림을 원했지만 10년 20년 젊어 보이는 차림이 아니라 각자의 나이에서 5년 정도 젊어 보이는 옷차림을 유지하고 싶다고 했다. 중년기 체보자들은 젊어 보이는 옷차림을 원한 것이지 젊은 옷차림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젊은 옷차림이란 유행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고 꼭 끼거나 길이가 아주 짧은, 노출이 많은 디자인이거나 캄캄하고 발랄한 의복이미지라고 할 수 있었다.

중년기 주부들에게 젊어 보이는 옷차림이란 나이의 사회적 의미가 반영된 나이에 적절한 옷차림을 말했던 것이다. 나이에 맞지 않은 옷차림의 핵심은 ‘지나치다’는 점이었고, 너무 젊은, 너무 파인, 너무 끼는, 뒷모습만 20대인 60대의 외모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나이로 변화된 신체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의 습관대로 옷을 입었거나 유행하는 스타일을 무조건 선택한 모습은 나이에 맞지 않는 보기 싫은 옷차림이라고 하였고, 이런 경험은 다시 거울이 되어 나는 그렇게 입지 말아야지 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림 2〉 나이에 적절한 외모규범 속 내재요인

주변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자기의 외모 기준을 만들게 되고, 결국 특정 집단과 사회의 고정관념과 같은 외모규범이 된다. 이런 외모 규범은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나이에 맞는 옷차림이라는 사회적 시선이 되어 우리들의 외모를 감시하게 된다. 제보자 김정화 씨는 아직도 아가씨라는 호칭이 익숙할 정도로 젊고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지만 스스로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길면 안 될 것 같고, 단발머리 식으로 좀 자르고, 옷도 조금은 더 짧잠게 입어야지, 색깔은 화려해도 되지만 짧잠게 길어도 좀 길어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싫고 끔찍하다고 고백하였다. 50대 전환기 제보자들도 젊어서 부담 없이 입었던 옷이더라도 원단이나 색깔이 나이 먹으니까 조심스러워 지고, 입고 싶어도 입을 수 없는 옷이 생기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옷차림에선 늘 자신만만하던 제보자든, 평소 소심하고 조심스러웠던 제보자든 사회적 시선이 원하는 적절한 외모스타일로 합의점을 찾고 있었다.

미스 때부터 그런 스타일이면 지금까지도 추구 하더라고요. 40대 후반부터 저 스타일은 아닌 거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께,,, 쉽게 말하면 자기 아이들 옷 입고 나온 것처럼 막 입고 다니면 그게 보기 싫더라고요.

롱부츠에 시폰 치마 입고 싶어요. 스타일리시 하게 입고 싶은데 제일 걸리는 게 나이에요. 이 나이에 이 걸 입으면 남 시선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언니의) 나이를 모르면 그렇게 짧은 옷차림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모를 거야. 우리가 보면 예순이 넘었는데 이게 먼저 선입견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게 어설퍼.

## 2) 사회적 시선으로 내면화된 남편의 영향력 나이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에서 공통적으

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시선으로 관찰되었다. 사회적 시선을 제보자들의 언어로 찾아본다면 사회적 고정관념, 선입견, 타인의 시선, 남 이목, 남들 시선, 주변 사람들, 엄마, 남편의 반응 등이었다. 이런 사회적 시선과 개인적 변화욕구 간의 관계유형을 관찰하고, 제보자들의 외모변화에 가장 영향력 있는 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적 시선과 개인적 변화욕구

나이에 적절한 옷차림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각 제보자들의 반응은 다양했으며, 반응 태도와 반응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김정화, 황은영 씨는 자신의 옷차림과 외모를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면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당당했고 심지어 타인의 시선을 자기표현의 확인으로 즐기는 것처럼 관찰되었다. 자신의 의생활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크게 느끼며, 언제나 마음에 드는 의복을 구매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여유를 보였다.

남이 봤을 때, 막 야하게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에 내가 야하게 입느냐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원피스 같은 거 입으면, 제가 타이트한 것이 어울려요, 제가 야하게 입려고 하는 게 아닌데, 타이트한 원피스 같은 거를 입다보니까. 제가 55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볼륨감이 나오잖아요. 몸매가 딱. 원피스를 입으면 특히. 야하다고 그래요. 얼굴 형태가 야하대요. 미용실 아줌마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정선주, 이지민 씨는 늘 주변반응, 남들 시선을 의식함으로써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지 못하고, 나아가 새 옷을 사다 놓고 묵혀서 입는 등 자신의 옷차림에 자신 없음을 호소하였다. 매사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태

도나 자신감 있게 시도하지 못하는 행동의 원인을 엄마의 교육과 소심한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내재된 미적안목이 남편과 소속집단이 기대하는 눈높이와 달라서 늘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며 살아온 불편함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행이라는 일탈을 꿈꾸며, 자기를 모르는 여행지에서 어깨가 드러나는 티셔츠나 찢어진 바지 같은 옷차림으로 마음껏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였다.

남의 시선 안 받는 게 편해서 무난하게 그냥 입어요, 근데 속으론 아니에요. 그걸 누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서 막바지로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나머지 제보자들은 사회적 시선과 자기욕구가 편안하게 조절되어 타인의 시선에 안정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이경희, 최인선 씨는 의복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 등의 사회적 기준과 자신 갖고 있는 가치기준과 거의 동일하여, 사회적 시선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윤수현, 박미숙 씨는 옷차림에서 사회적 기준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부담감이나 거부감 없이 무난히 수용해서 평범하고 편안해보이는 집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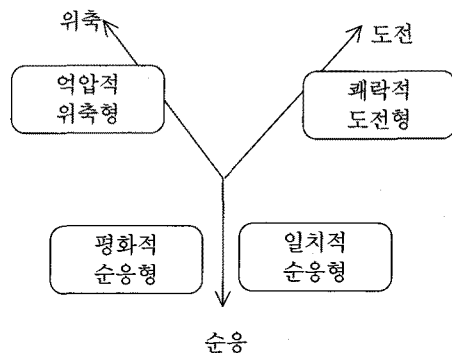
한 명도 맨발로 있는 선생님은 없어요(아주 단정하시네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낮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첫인상이 많이 중요한데, 굳이 나쁜 인상을 처음부터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활동으로) 누군가를 도우러 다닐 때가 많이 있는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편하고 정장차림의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회적 시선에 대한 제보자들의 태

도와 반응에서 유사함과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제보자들의 태도는 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었던 제보자들의 내면 욕구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즉 김정화, 황은영 씨는 사회적 시선에 당당했고, 정선주, 이지민 씨는 억압된 욕구 상태가 유사했다. 이경희, 최인선 씨는 사회적 기준과 자신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공통성이 관찰되었으며, 윤수현, 박미숙 씨는 사회적 기준에 거부감이 가장 적은 유사함이 보였다. 또한 나이에 적절한 옷차림에 반응하는 방식에서도 유사함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정화, 황은영 씨는 타인의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관찰되었고, 정선주, 이지민 씨는 주변 반응에 위축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경희, 최인선, 윤수현, 박미숙 씨는 타인의 시선에 안정적인 공통점이 보였다.

이렇듯 제보자들의 내면 욕구상태에 따라 억압적, 쾌락적, 일치적, 평화적인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사회적 시선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도전, 위축, 순응으로 차이 나는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로써 ‘쾌락적 도전형’, ‘억압적 위축형’, ‘일치적 순응형’, ‘평화적 순응형’으로 각 집단을 명명해 보았고, <그림 3>과 같다. 즉 자기의 변화욕구 표현에 두려움이 없는 ‘쾌락적 도전형’,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러워 자신감이 없는 ‘억압적 위축형’, 사회적 시선에



<그림 3> 사회적 시선과 변화욕구 유형

순응하며 자기욕구가 편안하게 조절된 것으로 보인 ‘일치적 순응형’과 ‘평화적 순응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2) 사회적시선, 남편과의 관계유형

사회적 시선을 수용하는 방식과 개인적 욕구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제보자자와 남편과의 관계 양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인 남자들이 그렇듯이 특히 50대인 제보자자들의 남편들 역시 옷과 외모에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었다. 제보자들의 평균 결혼 연령이 24년인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가까운 타인의 시선은 부모, 자매, 친구, 자녀가 아니라 남편이었고, 제보자들의 옷차림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 의생활에 대해 제보자들이 언급했던 남편과의 관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김정화, 황은영 씨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외모가치를 적극 지지해주고 나아가 남편이 아내스타일로 동화되는 지지관계로 보였다. 황은영 씨는 남편이 자기의 의복스타일을 좋아하며, 적극 지지해주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확신하였다. 김정화 씨의 경우 여름에도 코듀로이 바지를 입을 정도로 옷에 무심하던 남편이 옷을 좋아하게 되어 급기야 제보자 수준의 화려한 의생활을 즐긴다고 하였다. 제보자들의 평균 나이는 46세로 가장 젊었고 남편의 평균 나이는 52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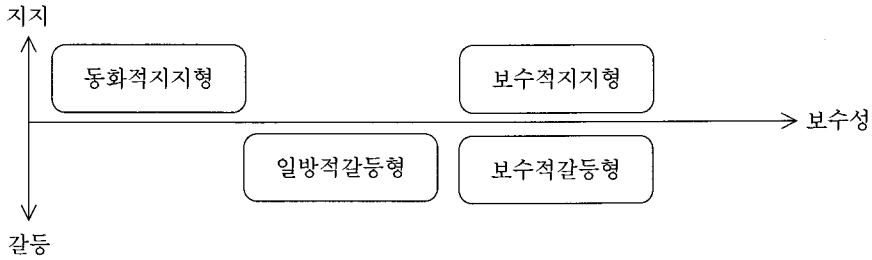
우리 신랑도도 입어보니까 ‘어머 젊어 보여요 원장님.’ ‘한 10년은 젊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는 거야. 옷을 이쁜걸 입으면 자기도 좀 자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는 거야. 옷사러가자 그러면 거절할 적이 없어. 당장 가버려 우리는.

다음으로 정선주, 이지민 씨는 모두 남편과

의복가치나 태도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으며,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특성을 보였다. 의생활 전반에서 남편이 포함된 사회적인 시선과 자기 표현욕구 사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외출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남편이 중심인 사회의 시선에 예민했으며, 옷차림에 대한 남편의 한 마디 때문에 늘 자제하기, 조심하기, 눈치 보기 등과 같은 억압적인 의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47.5세였고 남편의 평균 나이는 52세이었다.

남편하고 특히 어디 갈 때는 더 그런 거 같아요. 차라리 남편하고 안갈 때는 조금 하고 나가. 나 혼자 나갈 때는 그래도 덜 한데 남편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왔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평범하게 좋으니까 말이 안 나는 게 좋으니까 대중 남편하고 비슷하게 입고 나가는 거 같아요.

윤수현, 박미숙, 이경희, 최인선 씨의 경우, 남편은 사회생활 중심, 아내는 가정생활 중심이라는 보수적인 관계규범에 따라 서로의 역할영역을 거리감으로 유지하는 전형적인 부부라는 공통점이 관찰되었다. 이 제보자들은 모두 50대 전환기였으며,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테두리 안에서 의생활을 맞춘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윤수현, 박미숙 씨는 정해진 관계규범에 따라 일정한 생활비 범주 내에서 독립적으로 의생활을 영위하며, 쇼핑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할인하는 옷, 싸게 산 옷, 누워있는 옷 등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생활영역을 유지하는 융통성도 보였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1.5세였고 남편의 평균 나이는 54세였다. 이경희, 최인선 씨는 남편과 보수적인 관계 속에서 잘 살아왔으나 언젠가부터 아내의 변화요구와 남편의 보수성이 충돌하여 갈등을 느끼지만



〈그림 4〉 남편과의 관계 유형

아내 역시 보수적인 관계규범으로 이런 갈등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3.5세였고 남편의 평균 나이는 54.5세였다.

언제 불러도 준비돼서 따라나설 자세가 되었으니까 잘 부르죠. 어디가면 잘 데리고 다니려고는 하죠.

남이 보면 잉꼬부부고,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자기들 들이는 그 굽이 있는 거예요. 그 1%의 굽. 나에게 자율권을 주는 거죠. 뭘 결정한다거나. 그 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경영권 경제권이 들어있죠.

이처럼 김정화, 황은영 씨는 자신이 원하는 의생활을 남편이 수용하는 유사함이 관찰되었고, 정선주, 이지민 씨는 자신들이 원하는 옷차림을 남편에게 요구하지만 거부되는 공통점이 관찰되었다. 윤수현, 박미숙, 이경희, 최인선 씨는 남편의 지위나 신분의 테두리에서 의생활을 맞추는 유사함을 갖고 있었다. 이런 집단 별 차이는 부부의 역할관계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가에 따른 보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모든 제보자들은 비슷한 시간동안 인터뷰했으며, 제보자들이 스스로 말했던 남편과의 갈등 정도가 차이 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김정화, 황은영, 윤수현, 박미숙 씨는 남편과의 갈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정선주, 이지민, 이경희, 최인선 씨는 남

편과의 갈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렇듯 남편과의 관계유형은 보수성 정도에 따라 남편과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관계, 남편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내가 거리를 변화시키고자 요구하는 일방적인 관계, 아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적 관계로 서로 차이 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축은 제보자들의 외모가치에 대한 남편들의 반응에 따라 지지와 갈등으로 서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각 집단은 ‘보수적 지지형’, ‘보수적 갈등형’, ‘일방적 갈등형’, ‘포용적 지지형’으로 명명하였고, <그림 4>와 같이 모두 네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 VI. 나이 인식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의 내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연구자가 본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기술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연구자가 알게 된 분석내용과 형식을 통해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먼저 앞의 연구에서 주제 별로 제시했던 유형들 간의 관계특성을 이해하고,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 극복방안을 통해 중년기의 자기실현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 1) 연구주제별 유형들 간의 관계특성

중년기에 들어선 제보자들이 나이인식에 따라 반응하는 유형은 ‘심리적 갈등형’, ‘감각적 주도형’, ‘지적 주도형’, ‘종교적 수용형’으로 구분되었다. 나이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에서 변화의 기준은 사회적 시선이었고, 사회적 시선에 대응하는 변화유형은 ‘억압적 위축형’, ‘쾌락적 도전형’, ‘일치적 순응형’, ‘평화적 순응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모변화 경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남편은 사회적 시선으로 내면화된 약한 외모규범의 출발점이었고, ‘포용적 지지형’, ‘일방적 갈등형’, ‘보수적 갈등형’, ‘보수적 지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상의 유형들을 제보자별로 나열하여 성격특성의 차이와 유사함을 관찰하였다.

정선주, 이지민 씨는 나이인식에 따른 변화 욕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지 못하고 불편한 심리적 갈등상태에 있으며, 조용하고 예민하고 소심한 성향은 너무나 많은 타인의 시선에 눌려서 위축되고 억압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이 바라는 가치, 태도, 행동 등을 자기 방식대로 남편에게 요구해보지만 늘 수용 받지 못한다는 일방적인 소외감으로 남편과 갈등관계를 보인 ‘예민한 내향’ 집단이었다. 이 집단의 제보자들은 예민하면서 의존적인 자기성향으로 인해 모든 사회적 시선이나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갖게 되므로 늘 갈등을 경험하며 가진 것에 비해 만족감이 떨어지는 그래서 스스로 ‘흡족하지 못한’ 주부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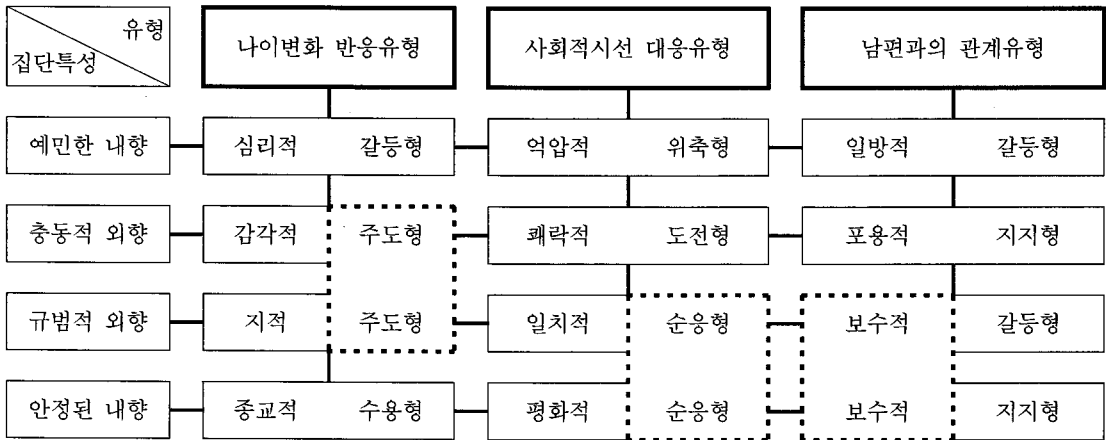
김정화, 황은영 씨는 자기를 돌아보는 중년기에 연예스타 팬클럽 활동이나 충동적 의복구매나 사용 관리 등 감각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변화 욕구와 요구를 정확히 표현하였다. 이들은 이목이 집중되는 옷차림을 즐기는 듯 자기의 감각적 표현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타인의 시선 앞에서도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나아가 다소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충동적 외향’ 집단이었다. 이 집단의 제보자들은 감각적이고 적극적인 자기성향과 가장 확실하게 남편의 협조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사회규범 속에서도 자유롭게 욕구에 충실할 수 있어 의복자신감과 만족감이 가장 큰 주부로 보였다.

이경희, 최인선 씨는 나이가 들면서 뚜렷해진 자기욕구는 남편과 대등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었고, 지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진학이나 사회활동을 연장하고 싶은 재취업이었다. 이들은 50대 전환기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 욕구를 주도해서 성취해낸 지적 자립심이 남다른 집단이었지만 성실하고 규범적인 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시선과 일치된 순응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부부사이도 역시 규범적, 보수적인 관계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의 가치 중심적이고 적극적인 개인 특성이 규범적인 아내로서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부싸움은 없지만 자기 모순적 갈등을 경험하는 ‘규범적 외향’ 집단이었다. 이 집단의 제보자들은 강한 의지력과 추진력을 가진 적극적인 자기성향과 살만한 집안의 여식으로 배양된 규범적, 관습적 생활태도에서 형성된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가 상충하여 발생하는 모순적 갈등관계를 보인 것이다.

윤수현, 박미숙 씨는 긍정적이고 온순한 성품과 함께 종교적 성숙으로 나이변화를 수용하는 편이었고, 사회적 시선에도 순응하며 평화롭고 차분한 특성을 지녔다. 부부 역할도 사회적 통념에 준한 보수적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가정적인 아내로서 근면, 성실, 적절한 재테크로 인정받는 보수적 지지관계를 유지하는 ‘안정된 내향’ 집단이었다. 이 집단의 제보자들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개인 성향과 보수적이고 수용적인 사회규범 태도로 인해 전형적으로 안정된 행복한 주부로 보였다.

이와 같이 각각의 유형에 포함된 제보자들



〈그림 5〉 주제별 유형간 관계도

을 다시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과 내향으로 구분했고, 다음으로 제보자가 중요하게 자주 언급했던 차별적인 특성에 따라 예민한, 충동적인, 규범적인, 안정된 네 집단으로 구분지어 각 집단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이들 집단과 연구주제별 유형의 관계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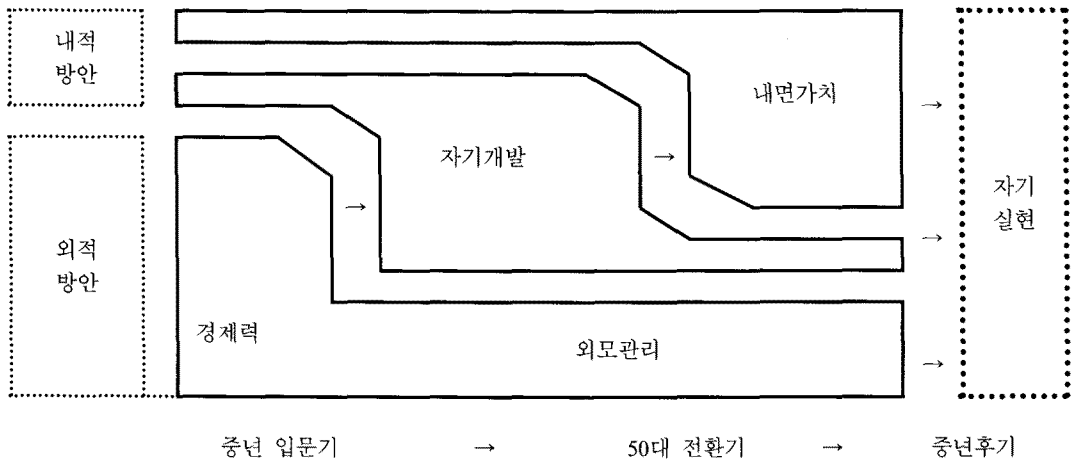
2) 자기실현과정으로 본 나이인식 극복방안

나이에 따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외적방안은 경제력 여유와 물질적 보상, 외모관리였으며, 내적방안은 자기개발과 내면의 아름다움 같이 새로운 가치를 추가함으로써 젊은 날의 평가차원과 차별화된 나이 들의 고유차원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년기 제보자들이 자기개발에 집중한다거나 내면가치 발견을 모색하는 행위는 자기 존재가치를 고양하려는 모든 인간의 속성인 것이다.

모든 제보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었지만 특히 감각적 충동적 외향집단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나이 극복방안은 경제력과 몸매, 피부, 성형 등의 외모관리이었다. 이는 신체와 외모, 옷차림을 포함한 물질적인 소유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기를 고양하려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라 하겠다. 전업 주부인 이지민, 박미숙, 이경희 씨는 내면가치의 중요성도 언급했지만 취업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했다. 이들이 설명했던 자기개발의 내용은 취미 활동, 학교생활, 봉사활동, 직장 생활 등이 포함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위치, 신분, 지위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자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라 하겠다. 취업주부 윤수현, 정선주, 최인선 씨는 자기개발에 대한 표현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더 많았다. 이들이 설명했던 내면가치는 배려, 성숙, 수용과 같은 심리적 종교적 성숙과 관련되며, 내면의 가치, 성격, 능력, 적성 같은 정신적 자기를 고양하려는 욕구라 하겠다.

이와 같이 나이인식 극복방안 중 경제력과 외모관리 같은 외적 극복방안은 모든 중년기에서 공통적이었고 아직 중년 입문기 초입에 있는 가장 젊은 나이이고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외향형의 제보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극복방안이었다. 중년기에 깊이 진입하면서 더 이상 젊지 않은 50대 전환기 제보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성향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그림 6〉 나이인식 극복방안의 자기실현 과정

자기개발과 내면가치 발견을 극복방안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었다. 내적 극복방안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취업의 형태로 일정 수준의 사회활동 경험이었다. 사회활동을 충분히 했거나 하고 있는 취업주부 제보자들은 성숙한 내면의 가치를 더욱 추구하고 싶다고 하였고, 사회활동이 부족한 전업주부 제보자들은 자기 개발을 위한 계속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처럼 다면적인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욕구는 경제력과 외모관리, 자기개발, 내면가치 추구로 실현되고 있음을 아래 <그림 6>에 정리해 보았다. 결국 제보자들이 경험했던 나이인식 극복방안 세 가지는 자기실현의 도구가 되었고, 이는 나이를 극복하고 나이 들어서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II. 결론

연구의 시작은 중년기 주부들이 나이를 인식하면서 변하게 되는 외모경험과 의생활 변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중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게 되었다. 취업여부

는 젊음이 사라지는 변화인식과 대응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먼저 중년 전환기의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제보자들을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나 나이인식과 외모변화의 차이를 보다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물리적인 변화가 확실한 50대 전환기 주부의 비교 면접을 추가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기 주부들이 나이를 인식하면서 변하게 되는 외모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과정에서 나이인식과 외모변화 기준을 중심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로부터 출발하였다. 첫째, 중년기 주부가 경험하는 나이인식의 대응방식과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둘째, 중년기 주부가 나이에 따라 경험한 외모변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셋째, 중년기 주부의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의 내면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나이 인식경험과 대응방안에 대한 제보자 간의 차이는 제보자 자신의 고유한 성향과 처한 상황 등 개인적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나이에 적절한 외모변화 경험은 남편과의 관계, 타인의 시선, 사회적 시선, 외모규범 등 사회적, 사회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

되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중년기 주부들의 외모변화를 통해 다면적인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자기실현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질적 자기고양 도구인 의복을 통해 유지하고 싶은 나이가 여성의류 제조업체가 기획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아닌 각자의 나이에서 5년 정도 젊어 보이는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실제 자기를 잊은 채 젊은 여성처럼 행세하는 것(Bernard, 2003)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다음은 나이에 따른 외모변화 경험의 기준과 내면에서 남편은 주부들에게 객체적 자기(me) 혹은 'looking-glass self (면경자기)'로 내면화됨으로써 제보자들의 외모기준이 되었고, 결국 의생활 전반의 자신감과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 가정주부 형상을 대표하는 중년의 전업주부들은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된 관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기 돌보기를 시도했다. 반 전통적인 주부형상을 가진 취업주부들은 삶의 여유와 깊이 그래서 풍요로운 내면가치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취업주부든 전업주부든 중년기는 '새로운 가치가 하나 더 추가된' 균형과 통합으로 중년기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년기 주부들의 나이인식에 따른 외모변화의 내면에 관한 질적 연구로써 자기개념, 자기실현, 자기발달이라는 중년기 주부의 내면을 이해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로는 외모변화 경험의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선호이미지, 선호 스타일, 유행중요도, 의복 구매와 관련된 구매가치, 구매습관, 구매정보, 구매 장소와 폐기과정 등을 통해 중년기 주부들의 물질적 구체적인 외모변화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중심연구가 갖는 일반화의 문제점이 있

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04). 중년후기 한국 여성의 노년기 전환기 경험. 대한가정학회지 42(7), 145-164.
- 2) 강혜원(1996).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3) 김명자(1998). 중년기의 발달. 서울: 교문사.
- 4) 김선미(2008). 가사도우미에 의한 가사노동 대체,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15-33.
- 5) 김선희(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5), 99-108.
- 6) 김애순(2004).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7) 김영천(2010). 질적연구방법론1. 서울: 문음사.
- 8) 김유덕, 김미영(2004). 중 노년층 여성의 의복추구이미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6), 746-757.
- 9) 김윤, 황선진(2008). 사회문화적 압력과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10), 112-122.
- 10) 노영, 박재욱(2008). 추구의복이미지에 따른 의류제품 디자인 설계 품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10), 1522-1534.
- 11) 노영주(2000).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71-83.
- 12) 류숙희, 신수래(2008). 중년여성의 가치관과 의복이미지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6(5), 111-121.
- 13) 박미란(2009). 양로원 할머니들의 죽음인식과 교육과의 관계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12(1), 203-232.
- 14) 변외진, 김춘경(2006).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분화, 내면체계가 자아정

- 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2), 155-165.
- 15) 심정희(2006). 중년 여성의 자기이미지 유형화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와 선호. *한국의류학회지* 30(11), 1608-1617.
  - 16) 이선옥(1999). 아름다운 몸과 일하는 몸의 이분법을 넘어서. in *여성을 위한 모임 지음*(1999). 제3의 성-중년여성 바로보기. 서울: 현암사. 169-200.
  - 17) 임숙자, 황선진, 이종남, 이승희(2009). 현대의상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 18) 정옥분(2000).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19) 조용환(1999).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 20) 조용환(2002). 질적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21) 한경혜, 노영주(2000). 중년 여성의 40대 전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2(1), 67-91.
  - 22) Bernard, M.(2003). *Women ageing: changing identities challenging myths*. NY: Routledge. 여성의 나이 늙음에 대한 이해. 여성한국사회연구소 역(2003). 서울: 경문사.
  - 23) Gilles, L. (2007). *La Troisie' me Femme*. 유정애 옮김(2007). 제 3의 여성. 서울: 도서출판 아고라.
  - 24) Levinson, D.(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Inc.,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옮김(1996).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5) Levinson, D. J.(1998).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Agnes Krup Literary Agency.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옮김(1998). 서울: 세종연구원.
  - 26)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Y; Holt, Rinehart & Winston. 문화 기술적 면접법. 박종흠 역(2003). 서울: 시그마프레스.
  - 27) Staudinger, U. M. & Bluck, S. (2001). A view on mid-life development from life-span theory. in Lachman, M. E.(2001).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28) Whitebourn, S. K.(1986). *The m I know; A study of adult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Verlag. in 김애순(2004). *성인발달과 생애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투 고 일 : 2010년 12월 27일
  - 심 사 일 : 2011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2월 8일